

‘난중일기’를 읽고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재미있거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없다. 그날그날 훈련한 기록, 무기 점검 기록, 일어난 사건 사고를 별다른 감정 없이 적어 놓은 글이다. 하지만 이 재미없는 난중일기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과 가족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추수철에 추수 걱정 하는 마음, 씨 뿌릴 때 바쁜 일손을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등등. 짧고 재미는 없는 글 속에 담긴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 가냘프게 전해 온다.

사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위인전도 읽었고, 영화도 봤고, 뮤지컬,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아서 그런지 책을 읽는 동안 그 장면이 떠올라 아마도 더 이해가 쉬웠는 지도 모른다. 난중일기가 아닌 책이나 영상 속의 이순신 장군은 거의 신과도 같은 존재감을 보인다. 전장에서는 늠름한 장군, 싸움이 끝난 후에는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랄까? 아무튼 이보다 더 멋진 사람은 역사상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미지는 참으로 완벽하고 훌륭하다. 누군가가 거짓으로 지어낸 인물이 아닐까 생각할 만큼 현실적으로 존재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난중일기는 장군의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순신 장군은 밥도 안 먹고 싸우는 줄 알았는데, 병사들과 같은 밥을 먹고, 군율에 따라 병사들의 잘못을 벌하고, 틈틈이 가족들을 챙기고, 병사들을 가족처럼 살피주는 모습이 난중일기 곳곳에 있다. 이 난중일기 속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식구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고 병사들과 백성들의 신임이 두터워질수록 임금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에 창고에서 울음을 삼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군율 바로 세우기 위해 군율을 어긴 병사들을 처벌하지만 처벌하는 아픈 마음이 그대로 전해온다.

내가 상상하는 이순신 장군은 한마디로 영웅이다. 23전 23승의 빛나는 전승 결과도 그렇지만 13척으로 330척을 막아낸 것 등, 장군의 행적 어느 것 하나 영웅으로 아버지로 때로는 상관으로 장군으로 백성을 보살피는 목민관으로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난중일기는 이런 완벽한 장군의 모습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순신 장군의 성실함과 유비무환 정신이 고스란히 오늘날까지 전해져 올 수 있는 것이 이 난중일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